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주간 전남농업

VOL. 234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5월 셋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기원, 아스파라거스 여름 다수확 재배기술 개발
정책동향 및 홍보 전남농기원, 벼 소식재배 현장연시회개최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무안군, 중만생종 양파 산지폐기 실시
해외 농업정보 베트남, 김치동향

전남농기원, 벼 소식재배 현장연시회 개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t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 6

- 20일 오전에 비가 오겠고,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1 ~ 16도, 최고기온 : 22 ~ 26도)과 비슷하겠음
- 강수량은 평년(1 ~ 6mm)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 7

- 사과 면적 및 개화
- 배 면적 및 개화
- 포도 면적 및 생육
- 복숭아 면적 및 개화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2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16

- 전남농기원, 연구개발 품종 유럽 수출을 위한 MOU 체결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17

- 사과 해충 노린재류 발생 45.5% 달해
- 밭작물 나방류 해충 피해 예방하세요
- 여름철 휴경기 관리로 딸기 뿌리썩이선충 잡는다
- 축사 환기·냉방 시설 미리 살피세요
- 종자 소독·토양 환경 개선으로 콩 수확량 늘려요
- 검은쌀 '흑미' 품질 높이려면, 모내기 시기 중요해요
- 딸기의 뿌리혹선충과 뿌리썩이선충 피해 진단 및 방제 방법
- 전남농기원, 아스파라거스 여름 다수확 재배기술 개발

6.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 27

-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 잡을 천적 대량 증식 가능성 확인
- “올 하반기, 아시아 토양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땅콩, 제 손으로 심었어요”
- ‘유기농명인 도전하세요’
- 전남 친환경쌀, 13년 연속 ‘여성 최고 명품대상’
- 본격 영농철, 마을공동급식으로 점심 해결
- 전남도, 롯데백화점 본점서 농수특산물 직거래

▸ 본격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 걱정 없어
▸ 전남도, 6월 22일까지 한 달간 농촌일손돕기
▸ 농식품부, 중·만생종 양파, 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 농식품부, 「2019 쌀가공식품산업대전」 개최
▸ 전남농기원, 벼 소식재배 현장연시회 개최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40

▸ 곡성군, 석곡농협 유기농쌀 백세미 농협 청와대 지점과 인연
▸ 담양군, 농업인과 귀농인이 함께 땀 흘려 일구는 상생
▸ 곡성군, '발효식품 제조 및 활용' 교육 호응
▸ 화순군, 귀농인 로컬 팜마켓 안정적인 판로처로 각광
▸ 화순군,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발효농법 교육 뜨거운 호응
▸ 화순군, 고품질 고추재배는 적기정식부터
▸ 영암군, CY그룹 농축산물 판로 위해 손 잡았다!
▸ 무안군, 중만생종 양파 산지폐기 실시
▸ 무안군,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성료
▸ 장성군,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농가 호평 이어져
▸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비파 체험 팜(Farm)파티 열려

8. 해외 농업정보 ····· 51

▸ 베트남, 김치동향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5. 20. 시카고 선물거래소)

9. 농식품 빅데이터(관측)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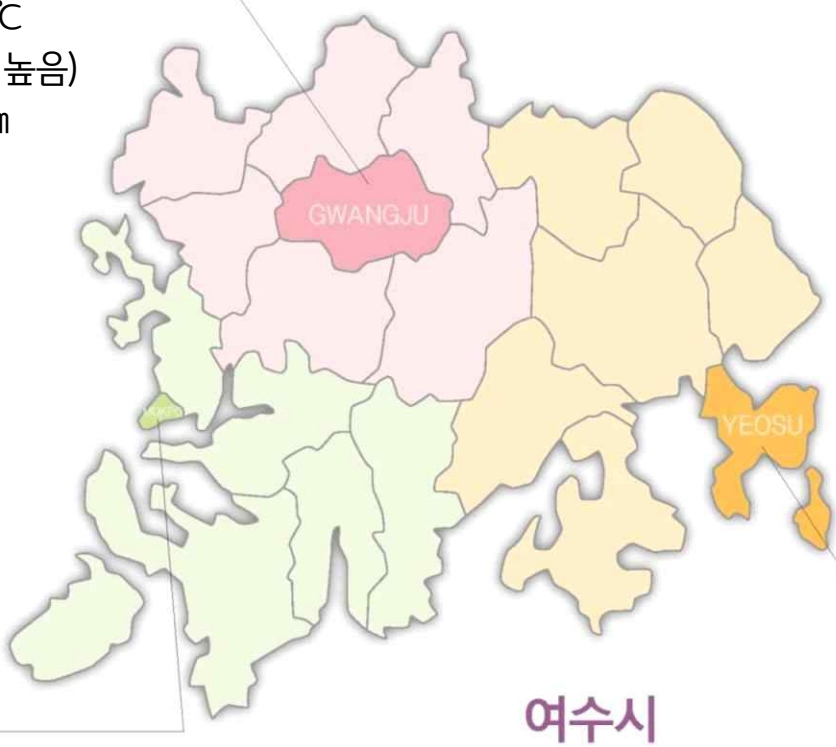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 농사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1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0.6℃
  (평년대비 1.3℃ 높음)
- 최고기온 : 26.3℃
  (평년대비 1.0℃ 높음)
- 최저기온 : 15.0℃
  (평년대비 0.9℃ 높음)
- 강 수 량 : 1.9㎜



목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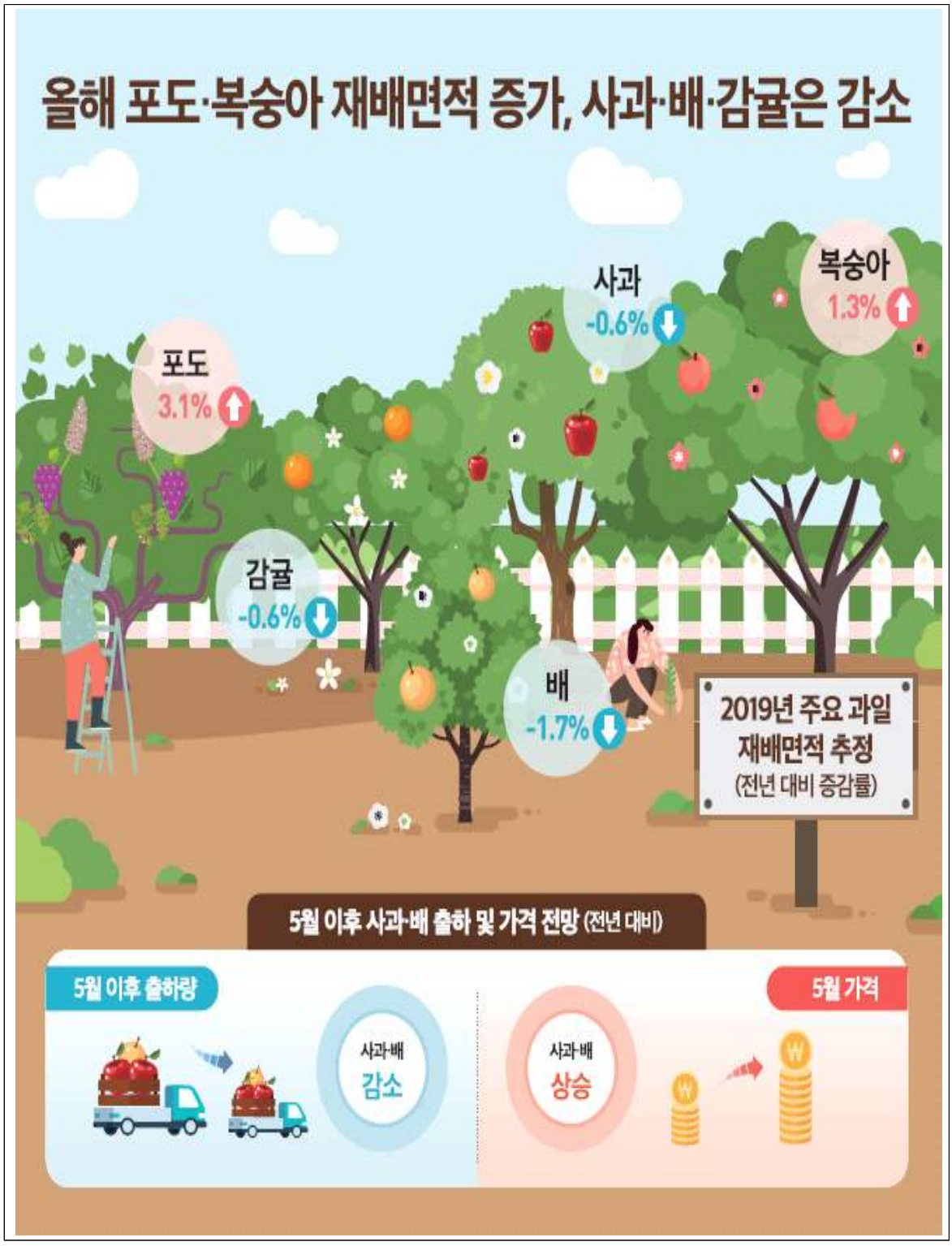
- 평균기온 : 19.0℃
  (평년대비 0.6℃ 높음)
- 최고기온 : 23.4℃
  (평년대비 0.1℃ 높음)
- 최저기온 : 14.6℃
  (평년대비 0.1℃ 높음)
- 강 수 량 : 2.1㎜

여수시

- 평균기온 : 19.8℃
  (평년대비 1.2℃ 높음)
- 최고기온 : 23.9℃
  (평년대비 1.4℃ 높음)
- 최저기온 : 15.7℃
  (평년대비 0.4℃ 높음)
- 강 수 량 :4.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2 농산물 관측정보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과 면적 및 개화

면적 : 2019년 사과 재배면적 전년보다 1% 감소 추정

- 2019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3만 3,037ha로 추정된다. 성목면적은 면적이 늘었던 유목의 성목화로 전년보다 1% 증가하였으나, 유목면적은 식규 식재가 줄어 전년보다 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품종별로는 홍로, 감홍, 착색계후지의 재배면적이 전년 보다 증가한 반면, 쓰가루, 양광, 조숙계·일반후지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화 : 사과 개화량 전년보다 많고, 개화 상태 양호

- 올해 사과 개화시기(전국 평균)는 3월 하순 이후의 저온 및 강풍 영향으로 생육이 더뎌 전년보다 3~4일 정도 느렸고, 만개일도 2일 가량 늦춰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금년 사과 개화량은 대체로 전년보다 많으나, 평년보다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개화상태는 냉해 피해가 컸던 전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경남 밀양, 경북 의성, 충북 충주·보은 등의 일부 농가에서는 4월에 몇 차례 서리 및 큰 일교차로 씨방이 검게 변하거나 꽃대가 짧은 등 냉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피해 정도는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면적 및 개화

면적 : 2019년 배 재배면적 전년 대비 2%감소 추정

- 올해 배 재배면적은 1만 124ha로 전년보다 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목면적은 농가고령화와 도시개발, 과원 원지 정비, 타 작목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석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유목면적은 국내 육성 품종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기타 품종(신화, 창조, 화산, 황금, 그린시스 등)의 신규 식재 및 고령복의 품종 갱신이 이루어지면서 전년보다 2%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화 : 올해 개화시기 전년보다 늦고, 개화 상태 양호

- 금년 배 개화시기(전국 평균)는 3~4월의 저온 현상 등으로 전년보다 3~4일 정도 늦었으며, 개화 지연으로 만개일도 2일 가량 늦춰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개화상태는 저온피해가 극심했던 전년보다 양호하며, 꽃수도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남 나주·영암, 경북 상주 등의 지역은 저지대 과원을 중심으로 저온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인공 수분 작업으로 결실률은 전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부 저온피해가 심한 과원은 수정이 불량하여 결실뿐만 아니라 배 품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포도 면적 및 생육

면적 : 2019년 포도 재배면적 전년보다 3%증가 추정

- 2019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증가한 1만 3,191ha로 추정된다. 특히, 유목면적이 전년 대비 45%로 크게 증가 했는데, 이는 샤인머스캇에 대한 기존농가의 신규식재가 증가한데다 복숭아, 대추 등에서 샤인머스캇으로 품목을 전환한 농가도 늘었기 때문이다.
- 작형별로는 노지와 시설이 전년 대비 각각 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시설의 경우 가온 면적은 전년보다 5% 줄었으나 , 무가온 면적은 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품종별로는 샤인머스캇의 재배면적이 1,706ha로 전년대비 79%나 증가하여 캠벨얼리, 거봉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ᄎᆞ지하게 되었다. 캠벨얼리는 전년보다 5% 감소하였으며, 재배면적이 증가하던 거봉도 농가의 샤인머스캇 신규 식재 선호로 전년 대비 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육 : 시설포도 생육상황 전년 대비 대체로 양호

- 시설포도 생육상황은 전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금년 겨울철과 봄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동해 및 냉해가 전년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 시설포도의 발아시기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경기·강원 및 호남은 전년보다 개화시기가 3~4일 늦은 반면, 경북 지역은 2~3일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복숭아 면적 및 개화

면적 : 2019년 복숭아 재배면적 전년보다 1% 증가 추정

- 2019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한 2만1,366ha로 추정된다. 유목면적은 신규 식재 및 고령목의 품종 갱신으로, 성목면적은 유복의 성목화로 전년보다 각각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최근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신규 식재 면적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품종별로는 유모계의 재배면적이 전면보다 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천도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별로는 충청이 전년 대배 2% 증가하고, 경기·강원과 영남 지역은 각각 1%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호남 지역의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화 : 복숭아 개화량 전년보다 많고, 개화 상태 양호

- 올해 복숭아 개화일(전국 평균)은 3월 하순 이후 기온 하락 및 큰 일교차로 생육이 지연되어 전년보다 1일 가량 느린 것으로 나타났고, 만개일도 전년과 평년보다 1~2일 가량 늦춰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금년 복숭아 꽃수는 겨울철 기상 호조로 전년과 평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화상태도 겨울철 동해와 봄철 냉해가 심했던 전년보다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5. 20. 기준 / 단위 : 원)

식량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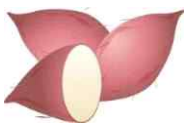
쌀(일반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20kg	49,180	49,180	↑ 1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180	44,520	39,680	↑ 23.2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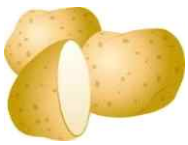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20kg	49,180	49,180	↑ 1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180	44,520	39,680	↑ 23.2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0kg	37,400	36,800	↓ 15.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850	44,150	30,227	↑ 23.7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20kg	47,000	42,400	↓ 1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7,750	54,500	49,933	↓ 5.9

채소류

배추(월동)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0kg	4,600	3,6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340	-	7,544	↓ 39.0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8kg	6,900	4,500	↑ 3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50	5,300	5,420	↑ 27.3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00개	24,000	29,200	↓ 29.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833	34,167	27,078	↓ 11.4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20개	9,200	12,200	↓ 49.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150	18,350	12,063	↓ 23.7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60kg	1,147,200	1,147,200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47,200	1,150,000	723,333	↑ 58.6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0kg	47,000	49,400	↑ 27.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300	36,800	41,333	↑ 13.7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20kg	135,000	135,000	↓ 6.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000	145,000	145,000	↓ 6.9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20kg	11,800	13,300	↑ 14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40	16,050	14,550	↓ 18.9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20kg	32,200	32,200	↑ 9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450	35,550	32,757	↓ 1.7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kg	1,580	1,290	↑ 1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0	1,430	1,634	↓ 3.3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5kg	17,400	20,400	↓ 2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800	21,800	19,837	↓ 12.3

딸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2kg	12,800	13,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500	-	14,320	↓ 10.6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0kg	17,800	20,800	↓ 19.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000	22,050	22,060	↓ 19.3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5kg	16,600	19,000	↓ 1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100	18,650	17,277	↓ 3.9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0kg	40,800	42,600	↑ 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950	38,200	41,042	↓ 0.6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5kg	53,400	53,800	↑ 10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150	35,950	43,133	↑ 23.8

참다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0kg	31,200	31,2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500	-	30,800	↑ 1.3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30kg	499,200	499,200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200	498,000	524,667	↓ 4.9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2kg	12,600	12,800	↓ 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600	13,450	12,607	↓ 0.1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2kg	7,200	7,400	↓ 8.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600	7,850	8,070	↓ 10.8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00g	7,984	7,906	↑ 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28	7,980	7,165	↑ 11.4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00g	2,015	1,988	↑ 9.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44	1,833	2,041	↓ 1.3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kg	5,392	5,107	↑ 13.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08	4,757	5,401	↓ 0.2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30개	5,137	5,297	↑ 18.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86	4,335	5,813	↓ 11.6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0)	1주일전 (5/13)	전년대비
1L	2,618	2,622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2	2,516	2,541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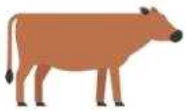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5. 20.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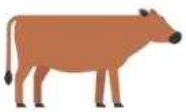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447	5,447	5,655	0.0	↓ 3.7
거세	7,015	6,871	7,041	↑ 2.1	↓ 0.4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64	3,266	3,248	↓ 0.1	↑ 0.5
수	4,028	4,031	4,047	↓ 0.1	↓ 0.5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94	3,271	3,51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8	↓ 3.5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37	435	291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5	↑ 50.2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87	384	40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8	↓ 5.1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240	1,375	1,17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9.8	↑ 5.8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25	968	75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4	↑ 22.0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2,15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2.1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전남농기원, 연구개발 품종 유럽 수출을 위한 MOU 체결

- 유럽에 우리 품종의 우수성 알리고, 로열티 획득 기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에서 연구 개발한 신품종의 유럽 수출을 위한 국제연구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전남농업기술원과 프랑스의 농업회사(소프뤼레그사) 간에 참다래를 포함한 신품종을 유럽지역에서 산업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 신품종 중 유럽지역에서 산업화가 유망한 품종을 현지에 공급하고, 현지 회사에서는 이탈리아 소재 유럽연합 품종보호 사무국에 품종보호출원 등록 업무를 대행하며, 신품종에 대한 시험재배와 평가를 실시한다.
-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참다래 3품종에 대한 프랑스 시험재배 계약을 통해 3년째 재배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지난 연말에는 현지회사에서 내방하여 현재까지의 생육과 품질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시험재배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에 로열티 계약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 이번 국제협약 체결은 이러한 시험재배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간 신뢰를 돈독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
- 김성일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 우리 기술원이 개발한 비파, 석류 등 신품종 등도 해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유럽에 널리 알리고 로열티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5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사과 해충 노린재류 발생 45.5% 달해

- 페로몬 트랩으로 발생 밀도 파악한 뒤, 방제 시기 정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표적인 사과 해충인 '노린재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페로몬 트랩을 이용해 발생 상황을 살피고 제때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 기상과 재배 환경 변화 등으로 2000년대부터 국내 사과 과수원에 발생하기 시작한 노린재류는 최근 10년간 발생 과수원 비율이 전체의 45.5%에 이른다.

- 주요 노린재류로는 생육기(4~5월)부터 수확기(11월)까지 피해를 주는 '썩덩나무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와 5~6월 새순과 어린 과실에 피해를 주는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등이 있다.
- 썩덩나무노린재와 갈색날개노린재로부터 피해를 본 사과는 피해 부위가 움푹 들어가고 중앙에 구침 자국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며 과육이 스펀지처럼 된다.
-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로부터 피해를 보면 새순에 여러 개의 구멍이 생기고 과실이 자라면서 기형이 되거나 표면이 거칠어진다.

- 방제 여부와 시기는 페로몬 트랩(벌레 잡는 장치)을 활용해 노린재 밀도를 파악한 뒤 결정한다.
- 시중에 판매 중인 집합 페로몬 트랩을 과수원 울타리 바깥쪽 등에 지상 1~1.5m 높이에 설치한다. 주기적으로 페로몬을 교체해 밀도를 조사하되, 과수원과의 거리를 가능하면 4~5m 정도 확보해야 페로몬으로 유인된 노린재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방제 적기는 트랩당 50~100마리 이상 포획됐을 때로, 적용 약제를 사용해 방제한다. 주요 방제 시기인 6~9월에는 예찰을 통해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등 심식 나방류와 동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약제는 계통을 구분해 같은 계통을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박교선 소장은 "노린재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충 생태를 이해하고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예찰을 통해 방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로몬 트랩을 이용해 예찰하면 약제의 과다 사용을 막아 환경 친화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밭작물 나방류 해충 피해 예방하세요

- 지난겨울 따뜻해 월동해충 늘 것...거세미나방은 파종 전 방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겨울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밭작물의 나방류 해충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제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 올해는 지난 해 겨울철 기온이 평년대비 0.8℃ 높았고 강수량은 33.9mm 줄어 월동해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 5~6월에는 파종 후 어린모가 자라는 시기로 거세미나방의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 거세미나방은 콩, 옥수수, 감자 등 대부 분의 밭작물에 피해를 주며, 지면에 가까운 어린 모 줄기 부분을 갉아먹어 피해가 크다. 특히 겨울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거세미나방 유충〉때 많이 발생해 올해 피해가 우려된다. 파종 전 클로르피리포스, 베타사이플루트린, 비펜트린 등의 토양살충제를 뿌려 방제한다.
- 파종 후에는 담배거세미나방, 파밤나방, 조명나방, 왕담배나방 등을 주의해야 하며, 약제는 7일 간격으로 2차례 뿌려준다.
- 담배거세미나방은 콩과 팥 등 두류작물과 참깨와 들깨에도 피해를 준다. 6월 중순에서 하순에 부화한 애벌레가 7월 중순과 하순 무렵 밭작물에 피해를 준다. 인독사카브, 에토펜프록스 등으로 방제한다.

- 파밤나방은 담배거세미나방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며 대부분의 밭작물에 피해를 준다.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인독사카브, 비펜트린 등으로 방제한다.
- 조명나방은 옥수수, 조, 수수 등에 피해를 주며, 애벌레가 줄기 속을 갉아먹어 작물이 쓰러지고 죽는 등 피해가 크다. 1화기1)는 6월 상순에서 7월 상순에 발생하며, 2화기인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무렵 특히 피해가 심해 주의해야 한다. 델타메트린, 인독사카브, 에토펜프록스 등으로 방제한다.
- 왕담배나방은 팥, 옥수수, 들깨, 감자 등에 피해를 주는데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다. 인독사카브, 델타메트린, 클로르페나피르 등으로 방제한다.
- 해충이 발생하면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을 참고해 반드시 작물별로 등록 약제를 사용해 방제한다.
-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정태욱 과장은 "5월과 6월은 해충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특히 거세미나방을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에도 나방류 해충을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여름철 휴경기 관리로 딸기 뿌리썩이선충 잡는다

- 농촌진흥청, 뿌리썩이선충 예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딸기 시설재배지에서 문제가 되는 뿌리썩이선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름철 휴경기에 철저히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 뿌리썩이선충은 딸기 뿌리를 썩게 해 생육 저해, 수량 감소 등의 피해를 주는 식물기생선충으로, 크기가 1mm 이하로 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렵다.
- 뿌리썩이선충은 딸기 재배 중에는 방제가 어려워 5~8월 휴경기간 동안 토양 내 선충 밀도를 줄이고 딸기를 정식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뿌리썩이선충은 열에 약해 5~8월 사이 토양 표면을 비닐로 덮고 하우스를 밀폐시킨 후 태양열을 이용해 2개월 이상 토양을 소독하면 선충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
- 또한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등 선충을 방제하는 효과가 있는 풋거름작물을 약 2개월 간 재배하고 경운해 토양에 환원시킨 후 1개월 간 후숙시켜도 뿌리썩이선충이 80% 이상 감소한다.
- 딸기의 뿌리썩이선충에 등록된 약제로는 이미시아포스가 있으며, 약제 제형에 따라 정식 전 토양혼화처리나 정식 직후 토양관주처리를 하면 선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 딸기 재배가 끝난 후 식물체를 그대로 두면 뿌리썩이선충이 계속 늘어나 다음 작기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딸기 재배가 끝난 직후에는 토양을 경운해 식물체를 제거해야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축사 환기·냉방 시설 미리 살피세요

- 농촌진흥청, 더위 오면 송풍팬 · 안개 분무로 온도 낮춰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꼼꼼한 축사 관리로 가축 스트레스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가축이 더위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을 많이 마시고 사료는 적게 먹어 결국 체중이 늘지 않는다. 또한 번식장애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환기팬이나 송풍팬을 이용해 축사 안에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해주는 것이다.
- 우사(외양간)는 50㎡(15평)당 1대 이상의 송풍팬을 3~4m 높이에 45°로 설치한다. 풍속은 1m/s 이상으로 한다.
- 개방형 축사는 출입문, 윈치커튼을 개방해 외부 공기가 쉽게 드나들게 한다. 송풍팬을 함께 이용할 경우 축사 주변에 형성되는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 강제 환기로 온도를 조절하는 밀폐형 축사는, 입기와 배기팬이 잘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축이 머무는 운동장과 축사는 차광막 등을 이용해 그늘을 만들어 준다. 이때 송풍팬을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크다.
- 안개분무 등으로 몸의 온도를 낮추거나 축사로 들어오는 공기 온도를 낮추는 것도 스트레스를 더는데 도움이 된다.
- 단, 내부 습도가 오르면 가축의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축사바닥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을 정도로 하고, 송풍팬이나 환기팬을 함께 사용한다.
- 가축이 물을 마시는 시설을 점검하고 시원한 물(10~15℃)을 공급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료섭취량이 줄지 않도록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종자 소독·토양 환경 개선으로 콩 수확량 늘려요

- 6월 상순부터 심고, 알 크기에 따라 심는 거리 달리 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안정적인 콩 생산을 위해 씨 뿌릴 때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 품종은 생산성과 용도별 가공적성, 유통을 고려해 건강한 보급종을 선택해 구입한다. 그 밖의 종자는 파종 전에 반드시 소독한다. 종자 1kg에 소독제(베노밀)를 4g~5g 골고루 묻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법이다.
-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포장 준비를 한다. 미리 쟁기질을 해두면 토양 환경이 좋아져 수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 콩은 6월 상순부터 하순에 심는 것이 알맞으며, 앞 작물과의 작업 또는 날씨를 따져 결정한다.
- 이랑과 포기 사이의 거리를 정할 때, 알이 큰 장류·두부용은 70cm×15cm, 알이 작은 나물용은 60cm×10cm가 알맞다.
- 일찍 심었거나 거름기가 많은 토양은 쓰러짐을 막기 위해 간격을 넓게 하는 것이 좋다. 구멍 한 개당 종자 2알~3알을 심으면 쓰러짐이 줄고, 3알~5알을 심을 때보다 수량도 약 10% 는다.
- 논에서 콩을 재배할 때는 물관리가 중요하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잠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씨 뿌리기 전에 논 가장자리에 50cm~80cm 깊이의 배수로를 만든다.
- 제초제는 벼에 안전한 것을 고르고,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검은쌀 '흑미' 품질 높이려면, 모내기 시기 중요해요

- 적기보다 2~3주 늦게 모내기 해야...안토시아닌 함량 높아져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품질의 흑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기보다 2주~3주 늦게 모내기 할 것을 추천했다.

- 흑미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씨껍질(종피)에 많이 함유한 쌀로 재배 환경에 따라 함량이 크게 달라진다.

- 흑미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씨껍질(종피)에 많이 함유한 쌀로 재배 환경에 따라 함량이 크게 달라진다.
- 외관상 색깔에 따라 흑미의 등급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함량을 높여 흑미 색을 진하게 하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이 3년간 흑미 14품종을 시험한 결과, 모내기 적기보다 2~3주 늦게 했을 때 안토시아닌 함량이 1.5배~3배 이상 높았다.
- 6월 20일에 모내기 하면 안토시아닌 함량이 1.5배~2배 정도 높았고, 6월 30일에 모내기 하면 최대 3배까지 높았다.
- 모내기가 늦어지면 이삭이 나온 후의 기온도 낮아지는데, 이삭이 나온 후 30일간의 평균기온이 22℃ 이하일 때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흑미 색깔도 진하게 된다.
- 특히 조생종 흑미는 모내기 시기가 늦어지면 중생종이나 중만생종에 비해 안토시아닌 함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한편, 흑미는 모내기 적기보다 2주 이상 늦어지면 안토시아닌 함량은 높아지지만 쌀 수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2~3주 사이의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농촌진흥청

딸기의 뿌리혹선충과 뿌리썩이선충 피해 진단 및 방제 방법

- 딸기 문제 선충 피해 증상 및 진단 -

- 딸기 재배지 식물기생선충 감염 현황
  - 딸기 시설재배지 식물기생선충 감염 현황 조사 결과 뿌리혹선충과 뿌리썩이선충이 문제 선충으로 확인됨
- 뿌리혹선충 피해 증상 및 진단
  - 건전한 딸기 포기에 비해 생육이 불량하여 왜소하고 열매가 정상에 비해 작으며, 뿌리에는 작은 혹을 형성하고 혹 주변에는 잔뿌리가 발달함
  - 뿌리혹선충은 구침 발달이 미약하고 꼬리 끝이 뾰족한 특징이 있으며 토양에서 선충 분리 시 2기 유충만 관찰됨
- 뿌리썩이선충 피해 증상 및 진단
  - 정상적인 딸기에 비해 과육이 작게 형성되고 초기에는 잔뿌리에 갈색의 작은 반점이 나타나고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잔뿌리가 검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남

- 딸기 문제 선충 방제 방법 -

- (건전육묘) 상토를 이용한 비가림 포트육묘를 통해 선충이 감염되지 않은 자묘 생산 가능
- (휴경기 방제) 6~8월 사이 태양열 소독, 선충 방제효과가 있는 풋거름 작물 재배, 등록된 살선충제 선충 처리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자료제공: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고형래 063-238-3317
- 자료편집 :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기원, 아스파라거스 여름 다수확 재배기술 개발

입경(줄기세우기)으로 상품수량 57~70% 늘어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아스파라거스를 봄부터 초가을까지 장기간 수확할 수 있는 입경(줄기세우기) 방법을 구명하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 남부지역에서 2월부터 9월까지 수확하다 보면, 뿌리의 양분소모가 많아져 새순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에서 어린 순을 줄기로 키워 광합성을 유도한 후 양분을 뿌리로 보내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경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봄철 수확을 마친 후 5월 상순경부터 식물체 한 그루당 굵기가 1cm 정도 되는 어린 순을 일주일에 1개씩 남기면서 수확하고 1개월간 3~5개 정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키우는 순차적 입경방법과,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일제히 어린 순을 줄기로 키우는 일제 입경방법 인데, 농사를 처음 짓는 경우, 활용하기 쉬운 일제입경 방법을 쓰다가 점진적으로 순차입경 방법을 활용하면, 아스파라거스를 장기간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아스파라거스를 봄~여름철에 걸쳐 장기간 재배할 때 입경을 하지 않는 농가의 여름수확은 10a당 273kg 인데 비해 순차입경이나 일제입경 방법을 활용하는 농가의 상품 수량은 57%에서 7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6 정책동향 및 홍보안내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 잡을 천적 대량 증식 가능성 확인

- 농촌진흥청, 선녀벌레집게벌 들여와 대량 증식 성공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의 천적인 '선녀벌레집게벌'을 이탈리아 파도바대학교와 국제협력사업으로 도입해 국내에서 대량 증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미국선녀벌레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인 해충으로, 2009년 서울과 밀양에서 처음 발견된 뒤 해마다 발생 지역과 면적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3개 지역에서 발견돼 농가 피해와 방제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 선녀벌레집게벌의 암컷 성충

- 이번 연구에서 도입된 선녀벌레집게벌의 암컷 성충은 미국선녀벌레의 어린 애벌레(1~3령)를 잡아먹고, 성숙한 애벌레(4~5령)의 몸에는 알을 낳는다.

- 이번 연구에서 도입된 선녀벌레집게벌의 암컷 성충은 미국선녀벌레의 어린 애벌레(1~3령)를 잡아먹고, 성숙한 애벌레(4~5령)의 몸에는 알을 낳는다.
- 선녀벌레집게벌의 알은 미국선녀벌레 애벌레의 몸에서 부화한 후 기생이 끝나면 몸 밖으로 탈출해 고치를 만드는데 이때 미국선녀벌레 애벌레는 죽게 된다.

- 도입된 선녀벌레집게벌의 국내 증식을 위해 약 2.5m 높이의 대형망실을 설치하고 미국선녀벌레 기주식물로는 봉나무를 선택했다.
- 봉나무 잎에 야외에서 채집한 미국선녀벌레 약충을 대량으로 접종한 뒤 선녀벌레집게벌 암컷 어른벌레 20마리를 방사했다. 이후 1,000여 개의 고치를 얻었으며, 이는 선녀벌레집게벌 1마리당 미국선녀벌레 50여 마리를 방제할 수 있는 양으로 확인됐다.
- 이때 고치 중 약 7%에서 선녀벌레집게벌 어른벌레가 다시 출현했다. 이 어른벌레를 방사한 지 약 2개월 후 방사 지점 2m 내에서 70여 개의 고치가 발견됐다. 다시 말해, 야외에서도 선녀벌레집게벌이 안정적으로 증식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이 고치로 국내에서 선녀벌레집게벌이 성공적으로 겨울나기가 가능한지, 고치가 어른벌레로 언제 나타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대량 증식과 야외 방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현란 작물보호과장은 "이번 연구로 미국선녀벌레의 주요 천적인 선녀벌레집게벌이 안정적으로 야외에 정착된다면 방제 예산을 줄이고 농림생태계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올 하반기, 아시아 토양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농촌진흥청장, 15일 이탈리아 '토양침식 국제회의'서 밝혀 -

-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1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FAO) 토양침식 국제회의에서 아시아 토양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토양 관리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 이날 열린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3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며, 토양 침식(표토가 물이나 바람에 유실되는 것)에 관한 과학,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한다.
- 김 청장은 개회연설에서 한국의 토양 조사는 FAO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음을 소개하며, 농업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사례를 들어 의미를 더했다.
- 아울러, "토양은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중요 자산이나 최근 토양 유실 증가로 식량안보와 지속적인 발전이 위협받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FAO와 함께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아시아 토양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1964년 FAO의 특별기금과 기술 지원을 받아 토양과 토양비옥도 조사에 나선 우리나라는 이후 꾸준한 기술 발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세밀한 전국 토양도(1:5,000) 제작, 독도통을 포함한 총 405개의 토양 이름 부여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 농촌진흥청은 그동안의 토양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1)를 통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땅콩, 제 손으로 심었어요”

- 농촌진흥청, 16일~17일 어린이 농사체험학습 운영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어린이들이 식량작물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농사체험학습을 16일과 17일 이틀간 국립식량과학원의 밭작물 재배지에서 진행한다.
- 어린이 농사체험학습에는 완주 지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40여명이 참여한다.
- 이날 체험학습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땅콩을 심기도 하고, 밀과 보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으며 농업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배울 수 있다.
- 한 초등학생 참가자는 "땅콩을 직접 심는다는 게 어색한데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밀이랑 보리도 처음 보는 거라 신기해서 계속 만져보게 돼요."라고 들뜬 기분을 전했다.
- 이번에 마련한 체험 프로그램은 미래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어린이들이 우리 농업의 가치를 깨닫게 함은 물론, 더 많은 이들에게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 하반기에는 땅콩과 고구마를 수확하는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정충섭 기술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 확산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유기농명인 도전하세요’

-전남도, 채소과수 등 5개 분야 6월 14일까지 시군서 접수-

- 전라남도는 현장의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저비용유기농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 지역 유기농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업인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6월 14일까지 시군에서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5년 이상 유기농 인증을 받고 농업에 참여하면서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고, 저비용유기농축산업을 선도하는 기술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 전라남도는 매년 유기농 명인 지정을 위해 선발 절차를 거치고 있다. 기존 유기농 명인 중 상대적으로 명인이 많은 벼 품목은 지정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채소, 과수, 밭작물, 축산, 기타 등 5개 분야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벼 품목 명인은 총 19명 중 7명이다.
-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해준다. 또 전남지역 3개 친환경농업인 교육관 등에서 유기농명인 교육과정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되고, 명인이 생산한 농식품의 포장용기 등의 표면에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유기농명인은 벼 7명, 과수 6명, 밭작물 2명, 채소 2명, 특용작물 1명, 축산 1명 등 19명이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 친환경쌀, 13년 연속 '여성 최고 명품대상'

-전국 성인 여성 2천 명 설문조사...30일 시상식-

- 전라남도는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제21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에 전남 친환경쌀이 13년 연속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기업과 기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신문사에서 1999년 제정, 올해로 21회를 맞고 있다.
- 전남쌀이 친환경 쌀 부문에서 최고의 명품대상으로 13년 연속 선정된 것은 생명의 땅 으뜸전남이란 도정 슬로건에 맞춰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 전라남도는 전국 친환경 쌀 인증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 친환경 전문 도정시설에서 직접 가공한 친환경 쌀을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 또한 2015년부터 전남지역 어린이집,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전국 최초로 유기농 쌀을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 학교급식에도 친환경 쌀 소요량의 50% 이상을 공급해 학생들의 건강과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고 있다.
-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에도 농업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전남 친환경쌀이 소비자들에게 명품 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했다"며 "앞으로도 전남쌀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본격 영농철, 마을공동급식으로 점심 해결

-전남도, 1천450개 마을 지원...농번기 여성농업인 가사부담 줄여-

-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1천450개 마을에서 펼친다.
- 마을 공동급식사업은 농번기철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마을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마을별로 연간 25일 범위에서 부식비와 인건비 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 공동급식 대상은 마을회관 등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농업인과 가족, 홀로 계신 어른신 등 20명 이상이 급식 가능한 마을이다. 급식시설과 조리 인력이 부족한 마을은 반찬배달시스템을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 농번기철 가사와 농사일을 도맡아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바쁜 영농철 때를 놓치지 않고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농업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농번기 효자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 전라남도는 지난해보다 185개 마을을 늘려 추진하며, 사업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2천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을공동급식사업은 여성농업인복지 향상의 핵심 시책사업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아 매년 희망하는 마을이 늘고 있다"며 "공동급식 수요를 감안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롯데백화점 본점서 농수특산물 직거래

-16~22일 햇매실햇마늘 등 최대 30% 할인...TV홈쇼핑 판매도-

- 전라남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등을 비롯한 직거래장터와 TV 홈쇼핑을 활용해 농수특산물 판매 확대에 나선다.
-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우수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연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업체 등 생산자가 지역 특산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 이번 직거래행사에선 올해 처음 수확한 햇매실, 햇마늘, 대추토마토 등 제철 농산물과 광어, 전복 등 수산물을 판매한다.
- 특히 수입 김치 증가로 어려움에 처한 배추, 양념 채소류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국산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해 여수 돌산갓김치와 해남 배추김치 특판 행사도 추진한다.
- 행사 기간 동안 구매자에게는 무안 햇양파 1.5kg 700개, 전남 10대 브랜드 샘플쌀 500개, 전복 만두, 고추씨 등 총 2천여 홍보 사은품을 제공한다.
- 전라남도는 또 16일 공영홈쇼핑에서 무안 자연나라 영농조합법인의 양파즙, 영광군농협쌀조합의 신동진 쌀, 여수 강순의 명가의 김치를, 20일 완도 다시마전복수산 영어조합법인의 전복을 판매한다.
- 이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경기 성남점,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롯데아울렛 수완점에서 생산자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출처 : 전라남도

본격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 걱정 없어

-전남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 81.2%로 안정적 수준-

-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남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81.2%로, 평년(72.5%)보다 높아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전남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80%를 넘는 점을 고려할 때 5~6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더라도 모내기철 영농작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강우 시기별,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전라남도는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전라남도는 또 일부 섬지역과 수리불안전답 등 물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비 13억 4천만 원을 지난 4월 선제적으로 지원해 간이양수장과 관정 개발 등에 대응해왔다.
- 김종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전남지역 저수율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기상 변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저수율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가뭄 대비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6월 22일까지 한 달간 농촌일손돕기

-군부대기관단체 등 적극 참여 요청...고령병고 농가 집중-

- 전라남도가 모내기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1개월간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 전라남도는 양파마늘매실감자 등 봄 작물 수확기에 농작업이 가장 많이 겹쳐 농촌 일손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한 달 동안 도,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부대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고령병고 농가 등 농작업 일손이 취약한 계층이다. 지원 농작업은 양파마늘매실감자 수확작업과 과실 솎기, 봉지 씌우기 등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농작업이다.
- 전라남도는 또 일손 지원 참여자가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도농(都農)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양파 등 농산물 사주기 캠페인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 전라남도는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이 1회 이상 봉사 차원의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토록 하고, 추진 기간 동안 읍면동, 시군, 도에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봄철 농번기에는 모내기와 마늘양파 수확 등 각종 농작업이 집중돼 농촌 일손이 매우 부족하다”며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도록 일손 돕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식품부, 중·만생종 양파, 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 수출확대, 출하정지, 수매비축 등으로 과잉 생산 예상량 일부 시장격리 -

- 전라남도가 모내기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1개월간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 전라남도는 양파마늘매실감자 등 봄 작물 수확기에 농작업이 가장 많이 겹쳐 농촌 일손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한 달 동안 도,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부대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고령병고 농가 등 농작업 일손이 취약한 계층이다. 지원 농작업은 양파마늘매실감자 수확작업과 과실 솎기, 봉지 씌우기 등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농작업이다.
- 전라남도는 또 일손 지원 참여자가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도농(都農)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양파 등 농산물 사주기 캠페인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 전라남도는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이 1회 이상 봉사 차원의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토록 하고, 추진 기간 동안 읍면동, 시군, 도에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봄철 농번기에는 모내기와 마늘양파 수확 등 각종 농작업이 집중돼 농촌 일손이 매우 부족하다”며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도록 일손 돕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식품부, 「2019 쌀가공식품산업대전」 개최

- 국내외 구매자(바이어) 유치를 통해 쌀가공식품 판로 확충, 수출시장 개척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주최하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남두)가 주관하는「2019 쌀가공식품 산업대전(RICE SHOW)」이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은 아시아 4대 식품전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과 연계해 진행되며, 총 56개 쌀가공식품업체가 참가하여 국내외 구매자(바이어)에게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쌀가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번 산업대전은 종합전시관과 기업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쌀 가공품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며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 또한, 이번 산업대전에서는 '2019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최종 선정된 TOP10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한 '쌀가공품 품평회'에는 HMR 간편식 용기제품, 유기농·친환경 제품, 유아용 스낵이유식 등 총 107개 제품이 출품됐다.
- 김정주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먹거리 다양화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이 건강·간편식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쌀가공식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외 구매자(바이어) 유치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쌀가공산업이 새로운 쌀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활로로 자리 잡아 우리 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농기원, 벼 소식재배 현장연시회 개최

- 벼 드물게 심어 생산비·노동력'확'줄인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보성군 미력면에서 '벼 생산비와 노동력 부담을 덜 수 있는 벼 소식재배 현장연시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연시회는 쌀 적정 생산의 하나로 추진 중인 '3저·3고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된 소식재배 기술을 확산·보급하고자 마련됐다.
- 벼 소식재배는 3.3㎡당 이앙 주수를 70주에서 37~50주로, 한 포기당 벼 개체 수를 10개 내외에서 3~5개 내외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 육묘 상자 수를 1,000㎡(10a당) 20~30개에서 10개~13개로 약 60% 줄고, 시간도 적게 걸려 벼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
- 연시회에서는 △소식재배 정의와 효과 △재배 시 유의사항 △앞으로 연구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새청무, 신동진 등 주요 품종별 파종량 · 육묘기간을 달리한 육묘상자 전시, 전용이앙기 전시, 이앙 연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 "벼 생산비와 노동력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식재배 연시회로 현장의 재배안전성과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을 더욱 빠르게 확산함은 물론,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곡성군, 석곡농협 유기농쌀 백세미 농협 청와대 지점과 인연

- 곡성군(군수 유근기)과 석곡농협이 지난 5월 14일 농협 청와대 지점과 도농 상생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 이번 자매결연은 곡성 명품쌀 백세미와 백세미 누룽지를 비롯해 곡성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를 위해 이루어졌다. 곡성군 석곡농협 임직원 7명은 청와대 지점을 방문해 영업장 내 농산물 판매코너에서 백세미와 백세미 누룽지를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 자매결연에 참여한 한승준 조합장은 "결연을 통해 청정지역 곡성의 대표쌀 백세미와 여러 농산물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 농협 청와대지점 김정기 지점장은 "어려운 농촌에서 생산되는 곡성의 유기농 명품쌀 백세미를 생산하는 농협과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이 상생함으로써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곡성 백세미는 얼마 전 유통을 시작한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 클럽에서 친환경 양곡부문 점유율 40%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석곡농협은 이번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곡성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장미축제를 기념해 축제현장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백세미를 판매할 계획이다.

*출처 : 곡성군

담양군, 농업인과 귀농인이 함께 땀 흘려 일구는 상생

- 담양군 '농업인학습단체·귀농인단체 상생 협력 고구마 심기 행사' 개최 -

- 담양군이 9일 농업인과 귀농인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단체와 귀농인 단체 회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고구마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와 담양군 귀농귀촌협의회를 포함한 5개 단체 임원과 회원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휴경지 2,600㎡를 고구마 소득 작목 확대 시범포로 탈바꿈시켰다.
- 한국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는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농산물인 고구마의 우량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귀농인과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 전남 무안군의 고구마 종순 재배단지 '베니하루카'를 벤치마킹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 한편 군은 지난 4월 17일 개최한 담양관광호텔에서 '담양군 농업인학습단체·담양군귀농·귀촌협의회 멘토링 협약식' 이후 농업인과 귀농인간 상호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 만남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착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담양군

곡성군, '발효식품 제조 및 활용' 교육 호응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는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대청마당에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명성 발효연구소장을 초청해 품목별 농업인 교육의 일환으로 '천연발효식초 제조 및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곡성 특산물인 토란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 오전에는 전통발효식초의 구분법을 주제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식초를 시음해보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였다.
- 특히 김명성 소장은 천연식초를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발효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교육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교육생들이 끝까지 교육에 성실하게 임하여 많은 것을 배워갔으리라 생각한다"며"후속 교육을 실시해 토란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의 초석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곡성군

화순군, 귀농인 로컬 팜마켓 안정적인 판로처로 각광

- 화순군(군수 구충곤)에서는 5월11일 귀농인 로컬 팜마켓에서 귀농귀촌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인 농특산물 판매장 개장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화순 8경중의 하나인 만연산 생태숲공원 내 위치한 귀농인 로컬 팜마켓은 전년도 4월 개장이후 17호의 귀농 농가가 참여해 직접 생산한 33종의 농특산물을 무인판매하고 있으며, 월평균 5백여만 원의 매출로 귀농인의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박병기)에서 운영 관리하는 귀농인 로컬 팜마켓은 채소, 잡곡, 작두콩, 유정란, 꿀, 아로니아 등 제철마다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365일 만나볼 수 있으며,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구충곤 군수는 귀농인의 농산물 판로처인 무인 팜마켓이 귀농인의 소득창출을 넘어 귀농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화순군 귀농귀촌의 성공사례를 알리는데 있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하였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인 농특산물 판매장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귀농귀촌학교 운영, 귀농인 연착륙 적응지원, 귀농귀촌 현장밀착형 학습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등 다양한 귀농정책을 펼쳐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률이 높이겠다고 하였다.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화순군,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발효농법 교육 뜨거운 호응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역농업 선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인 화순군농촌지도자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발효농법 교육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발효농법은 친환경 농자재 제조에 누룩, 막걸리와 같은 전통 발효법을 도입하여 비료성분의 작물 흡수율은 높이고 독성은 낮춰 땅은 살리고 저투입으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이다.
- 화순군은 전년도 농업인단체 등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발효농법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금년 2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읍면별 농촌지도자회를 대상으로 작물 정식전 사용할 수 있는 병해충 예방제인 유황누룩과 뿌리생육을 촉진할 수 있는 뿌리액비 만들기를 내용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회원들의 추가교육 희망으로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물 정식 후 웃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효복합비료 만들기 교육을 2차교육으로 진행중에 있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업 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영농현장에서는 미숙퇴비 사용, 화학비료와 농약 과다사용으로 농작물 피해와 토양환경 오염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년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 전면시행으로 농약사용에 대해 어느때 보다 농업인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며 우리군은 친환경 미생물 공급, 토양검정 무상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친환경 재배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 도입하고 농업인 교육을 통해 명품화순에 걸맞는 명품 농산물 생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밝혔다.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화순군, 고품질 고추재배는 적기정식부터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본격적인 노지고추 정식기를 맞아 일교차로 인한 저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고추 재배농가에 당부했다.
- 고추는 아메리카 열대성 기후지대가 원산지인 고온성 작물로, 야간에 15℃ 이하에서는 생육이 억제되고 정상적인 수분 수정이 일어나지 않아 수확량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식 전 야간온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저온피해를 받을 수 있다.
- 노지고추 정식 시기는 저온과 서리피해를 피할 수 있는 5월 초순 이후에 심어야 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터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만약, 정식 뒤 곧바로 저온피해를 받았을 경우 피해가 경미하면 요소 0.3%액이나 제4종복비 등을 엽면 시비해 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 정식주수는 10a당 1,800~2,500주를 정식하고 너무 밀식되지 않도록 하여 생육을 좋게 하고 병해충 예방 등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
- 화순군의 노지고추 재배는 300ha에서 생산액 91억원으로 소득 1위의 작목이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선 늦서리가 지난 적절한 정식시기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봄철에는 주·야간 기온 차가 심해 늦서리 피해가 우려돼 너무 빠른 조기 정식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영암군, CY그룹 농축산물 판로 위해 손 잡았다!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9일, 서울 CY그룹 회의실에서 영암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을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CY그룹과의 상생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 CY그룹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롯데그룹 유통매장에 농·축·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벤더업체로서 불가리아, 홍콩, 대만, 일본 등 국외에서도 핵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1972년 창립된 유통 전문기업이다.
- 이날 협약식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유통활성화와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교육·홍보 강화, 지역 농·축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동브랜드 활용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상호 협력, 영암지역 농·축산물 유통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발전방향 협의 등을 합의했다.
- 대한민국 최대 유통 판매망을 확보한 CY그룹과의 우수 농축산물 유통을 위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농업강군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영암군은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지역농산물을 입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대통령상에 빛나는 매력한우와 전남 10대 고품질브랜드쌀(총 16회)에 선정된 달마지쌀골드 및 무화과, 대봉감, 멜론, 영암배 등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수 농축산물을 선보일 계획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영암군

무안군, 중만생종 양파 산지폐기 실시

- 무안군(군수 김산)이 조생양파 68.7ha을 4월에 폐기한데 이어 중만생종 양파 20.6ha도 산지폐기를 하고 있다.
- 양파 산지폐기는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농협, 농가 간의 불가피한 조치다.
- 군에서는 지난 조생양파 폐기 시 농가 어려움을 감안 총 12억3천3백만 원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 20%인 2억4천7백만 원을 군비로 지원한 바 있다.
- 이후 조생종 양파는 3.3㎡당 7~8천 원에 포전 거래되어 한창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번 중만생종 양파 산지폐기는 산지가격 안정을 위해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고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20.6ha를 폐기하며, 3.3㎡당 6,174원으로 총 3억8천6백만 원이 지원된다.
- 한편 전국 최대, 최고 주산지인 무안군의 양파 재배면적은 2,760ha로(전국 21,756ha의 12.7%) 평년 3,259ha와 전년 3,177ha보다 각각 417ha, 499ha 줄었지만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근래 들어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출처 : 무안군

무안군 청계면,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성료

- 무안군 청계면(면장 구성남)은 10일 자매결연 기관인 성남시 야탑 3동을 방문하여 농산물 가격 하락과 소비둔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하여 고품질 황토농산물 소비촉진활동을 펼쳤다.
- 이날 소비촉진 행사는 게르마늄 성분이 많은 황토에서 재배되어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햇양파 700개(12kg/개)와 햇감자 300개(10kg/개)를 청계농협에서 준비하여 시중보다 40% 저렴한 가격에 성남시민들에게 선보였다.
- 또한 고품질 무안황토랑 홍보용쌀 200개를 증정하고 양파즙 시식행사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구성남 청계면장은“무안 청계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수도권 대도시에 직접 홍보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자매결연 기관인 야탑 3동과의 우호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야탑 3동과의 자매결연은 지난 2009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향후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호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상생 발전의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출처 : 무안군

장성군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농가 호평 이어져

- 4,000ha 일반 벼 농가에 약제비 지원해 -

- 장성군이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해 지역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 육묘상자 처리제는 살균제와 살충제가 혼합된 약제다. 벼 농사 초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멸구류 등의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모심기를 하기 1~2일 전 육묘상자에 직접 살포하며, 약효는 뿌린 날로부터 40일~60일 정도 지속된다. 대략 7월 하순까지 방제효과를 볼 수 있다.
- 장성군은 일반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조사를 통해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필요로 하는 농가 수요를 확인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약제 공급을 시작했다. 예산 규모는 6억 원으로, 총 4,000ha의 농지에 약제를 지원했다.
- 장성군 관계자는 "고품질의 약제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 장성군은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이외에도 관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벼 재배과정에 필요한 상토 및 매트, 맞춤형 비료, 공동방제 등 장성군의 체계적인 지원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쌀의 품질 향상,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출처 : 장성군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비파 체험 팜(Farm)파티 열려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4일 군외면 망축리 살리고영농조합법인 비파 농장에서 70여 명의 도시 소비자와 함께 먹고, 체험하고, 즐기는 팜(Farm)파티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살리고영농조합법인(대표 고영미)은 노지 8,250㎡, 하우스 2,970㎡에서 비파를 재배하고 있다.
- 완도자연그대로 비파는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과즙이 많으며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다.
- 행사에 참가한 소비자는 체험비 만 원으로 비파 따기, 손수건 풀물들이기, 비파 주스 만들기, 비파 음식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작은 음악회와 장기자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팜파티(Farm Party)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 다양한 먹거리, 체험거리, 즐길 거리를 도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서 농장과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농촌 체험 고객을 확대하는 도농 교류 행사다.
- 한편 완도군의 지역 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완도 비파 재배 농가는 124농가(총 71ha)며 올해 예상 수확량은 80톤(노지 50톤, 시설 30톤)이다.
- 완도군 관계자는 “팜파티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으로 꾸준히 소비자 확보가 되는 좋은 사례가 생기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른 소득 작물을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완도군

8 해외 농업정보

베트남, 김치동향

- 베트남, 박항서의 인기는 여전, 한국산 김치 열풍은? -

- 대베트남 김치 수출 규모를 살펴보면, 5년간(2014년~2018년) 대베트남 김치 수출량은 67톤에서 157톤으로 연평균 18%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27만 달러에서 51만 달러로 연평균 13%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
- 김치 시장은 생산과정의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생산비(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현지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종갓집 김치, 비비고 김치 등 한국산 주요 김치 브랜드 제품은 주로 한국계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업체에서 현지 소비자들을 겨냥해 현지에서 생산 중임. 특히, CJ 비비고는 현지인들의 입맛을 겨냥한 고수 김치도 출시되었으며, 종갓집은 박향서를 표지 모델로한 맛김치를 생산중에 있음.
- 현지 대형 유통 매장에서는 주로 포기김치나 맛김치, 깍두기 포장 판매가 상당 비중이었으며, 김장 김치는 덜어서 판매하는 제품도 다수 존재함.

-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일반 배추 김치가 현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영국 '가디언'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김치를 소개하여 건강한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음.
- 한국산 김치가 베트남 현지 시장으로 진출한 것은 10여년 정도임.
- 현지 식품회사(소규모 현지 생산 업체 포함)를 중심으로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제품들이 출시됨.
- 젓갈, 액젓 등 발효 음식에 익숙한 베트남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김치를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현지 생산 업체들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현지 생산 김치 판매 가격은 맛김치 기준 100g당 6,500동~9,000동 사이로 형성되어 있으며(비비고 CJ 김치가격 포함), 한국계 유통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김치는 현지 생산 판매가의 2.5배~3배로 판매되고 있음.
- 한국산 김치에 대해 인지도(브랜드, 안전성)가 낮은 현지인들은 현지 유통 대형마트(빅씨, 빈마트)에서 구매를 하고 있으며, 인지도가 형성된 그룹(한국인 회사원, 주재원 등)과 높은 구매력을 가진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계 유통매장에서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5. 20. 시카고 선물거래소)

- 대두 선물가격, 연일 이어지는 기상 악화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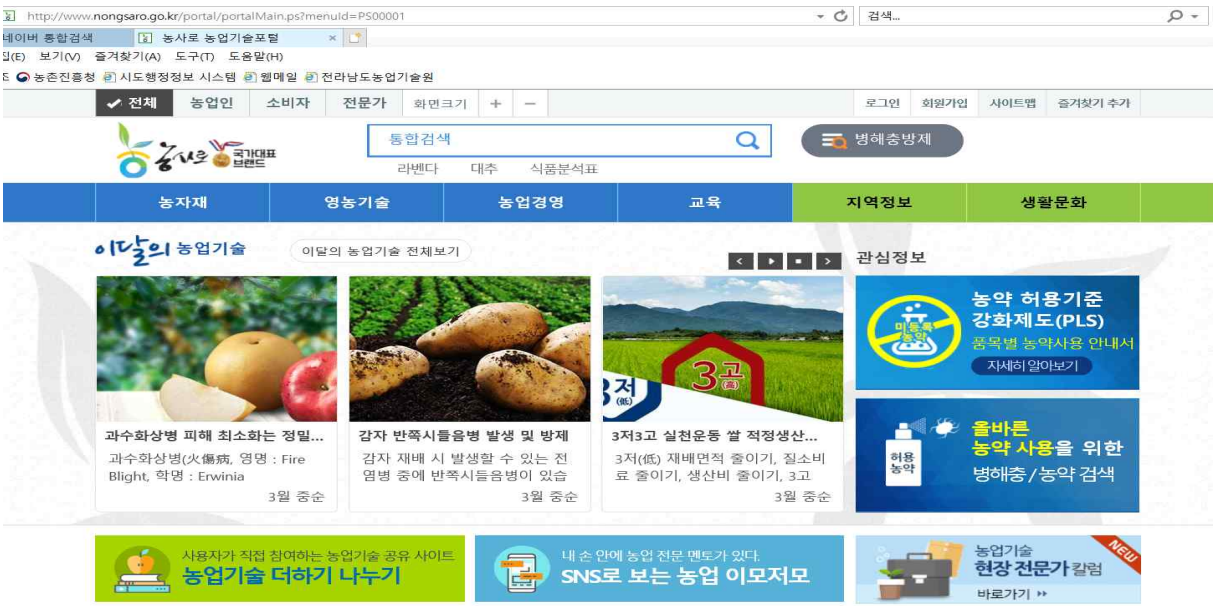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4%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거래 후반에 시세차익거래(profit-taking)로 상승했으나, 날씨와 관련된 우려와 옥수수에 대한 강세로 인해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다. 거래자들은 밀 시장이 과도한 습기가 북부 대평원의 파종 작업을 방해하고, 겨울 밀의 최종 성장 단계에서 질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1%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다음 주 미국 중서부 전역의 폭우로 인해 파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다. 옥수수 파종 지연 사태로 농부들이 일부 지역을 대두로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한편, 미-중 무역 협상에서 다시 재개된 긴장감은 대규모 대두 수출에 대한 희망을 꺾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2.1%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소나기와 옥수수의 파종 연기로 일부 에이커를 대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크게 하락 마감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농식품 빅데이터(관측)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농촌진흥청 농사로

- 농사에 필요한 농업관측은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사로에서는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 교육, 지역정보, 생활문화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경영에서는 농산물소득정보, 우수사례, 경영기술, 농식품소비트렌드, 농축산물가격, 경제성분석기준자료, 농가경영관리프로그램, 농식품산업동향,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관측정보에서는 년도별로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버섯,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 농사에 필요한 농업관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www.aglook.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는 농업관측, 관측연구 발간물, 품목동향, 소비정보, 알림광장, 본보소개, 농업전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관측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버섯, 관측속보, Daily&Weekly를 해당년도와 월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엽근채소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
  - 양념채소는 건고추, 양파, 마늘, 대파
  - 과일은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수입과일
  - 과채는 오이, 애호박,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풋고추
  - 축산은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 곡물은 쌀, 콩, 국제곡물, 감자
  - 버섯은 느타리, 양송이
- 품목동향에서는 가격&반입량, 도매가격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격&반입량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등
  - 도매가격동향은 품목별로 전일가격, 당일가격, 등락률 등
- 알림광장의 관측동영상에서는 농업관측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전라남도 축제일정

남도 봄꽃 축제로의 초대!

※ 축제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이나 기상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남도청 관광과 061. 286. 5261

4월

4. 6 ~4.20	목포 유달산봄축제
4.26~4.28	순천 문화재달빛야행
4.5~5.19	순천 2019 봄꽃축제
4.12~4.14	나주 영산포홍어축제
4.27~4.28	광양 백운산국사봉철쭉축제
4.18~4.20	구례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날
4.20~4.21	화순 동구리호수공원봄축제
4.20~4.21	화순 고인돌문화축제
4.6~4.7	강진 제2회 군동금곡사벚꽃길나들이
4.19~4.21	강진 제22회 전라병영성축제
4.26~4.27	강진 제16회 영랑문학제
4.19~4.20	해남 흑석산철쭉제
4.4~4.7	영암 왕인문화축제
4.26~5.6	함평 나비대축제
미정	함평 생(生)비빔밥어울림한마당축제
4.19~4.21	영광 곡우사리 영광굴비축제
4.13~4.14	장성 2019 빈센트의 봄
4.6~5.6	완도 청산도슬로걷기축제
4.12~4.21	신안 튤립축제

5.3~5.5	여수 거북선축제
5월 중	순천 낙안민속문화축제
5.3~5.5	나주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5.1~5.6	담양 대나무축제
5.17~5.26	곡성 세계장미축제
5.3~5.5	고흥 우주항공축제
5월 중	고흥 녹동 바다불꽃축제
5.2~5.6	보성 다향대축제
5.3~5.5	보성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3~5.4	화순 백아산 철쭉제
5.11~5.12	화순 운주문화축제
5.3~5.6	장흥 정남진장흥키조개축제
5.3~5.4	영광 찰보리문화축제
5.24~5.26	장성 홍길동축제
5.3~5.6	완도 2019 장보고수산물축제
5.4~5.5	진도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발

5월

청렴한세상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34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